

여성단체 인터뷰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경영인 포천시연합회 회장 이복숙

여성농업인 위상제고 · 농업활동 지원

“행사 때 찾아오는 1천여명 위한 화장실 마련해야”



4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경영인 포천시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이복숙(50·사진) 회장은 여성농업인의 위상제고는 물론 각종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 회원은 본인이 농업인 후계자이거나 남편이 농업인 후계자인 여성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이 농업인 후계자인 경우는 20%다.

수도작, 시설채소, 포도, 축산 등 농업 분야에 걸쳐 구성된 연합회는 각 읍면동 지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읍면동 조직의 경우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과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고 연합회는 회장1명, 부회장 3명, 사무국장 1명, 운영이사 4명,

감사 2명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5년전부터 연합회는 자체 사업으로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지역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원료로 하여 직접 담아 서울시민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12월에는 우리쌀 홍보 차원에서 떡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이 판매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관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좀더 수익금이 모아지면 여성농업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회원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계획도 세우고 있다.

여성농업인에게 농업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은 물론 농업활동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연합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기적인 농업기술이나 정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회원들 상호간에 자신이 알고 농업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견학을 갔는데 감자를 캐고 난 다음에 콩을 모종하는 것을 보고 우리 지역도 강원도와 기후가 비슷하다는 생각에 시도를 했는데 농사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벼농사 1만5천여평, 밭 3천여평, 한우 등의 농사를 짓고 있는 이 회장은 “요즘 어렵다고 난지 말고 헤쳐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모두가 잘 살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1천여명이 간장, 된장, 고추장 담그는 것을 보기 위해 다녀갔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포천시가 행사때에 화장실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포천신문사에 바라는 사항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찾아 그들의 애로사항을 널리 알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광세 주민생활지원국장 名譽退任

지방행정발전과 포천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

포천시는 6월13일 여성회관에서 이광세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명예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퇴임식 행사에는 서장인 포천시장을 비롯한 시 직원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이광세 국장은 1950년5월 소읍읍 이종교리에서 출생해 1968년도에 의정부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1969년1월1일에 공직에 입문해 40년간 지방행정 발전과 포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왔다.

1980년11월11일 행정주사로 승진해 사회과 복지계장, 새마을과 새마을계장, 개발계장, 민방위과 민방위계장, 건설과 지역계획계장, 내무과 감사계장 및 행정계장을 거친 후 1993년6월 12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해 상수도사업소장, 문화공보실장, 환경보호과장, 일동면장, 기획정책실장, 소홀읍장, 총무과장을 역임했으며 2003년10월24일 지방서기관으로



포천시는 6월13일 여성회관에서 이광세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

로 승진해 의회사무국장, 건설도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재직했다.

재임 중에는 탁월한 행정수행능력으로 군수표창 3회, 도지사 표창 2회, 내무부장관 표창 등 수 차례

에 걸쳐 표창을 받았으며 특히 총무과장으로 재임할 때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후배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가산면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조도행)는 6월13일 오전11시 가산면 마전3리 삼밭골에서 일석 이택규 선생 송덕비 제막식 및 2008년 상반기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경과보고, 감사패 증정, 장학금 수여 위원장인사, 격려사, 축사, 공덕비문 낭독, 유족대표인사, 송덕비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조도행 위원장은 “일석 선생님은 군내면 유교리 출신으로 가산초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가산초등학교에서 교직에 입문하시어 가산지역 후학들을 지도하시다가 평소 뜻다 이룬 꿈을 조금이라도 이루고자 자라나는 학생들의 영육사업을 위해 가산면청소년지도위원회를 통해 수십년간 장학금을 기탁하셨다”고 밝히고 “그분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공덕비를 세우기로 하고 오늘 제막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식에 앞서 감사패 전달은 조도행 위원장에게 아산이씨 대종회 이용현 회장이 전달했고 류규열 고문에게는 조돈창 경기도 교육위원이, 이진수 총무에게는 오정순 경기도포천교육장이 각각 전달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앞으로 가산면을 빛내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모범청소년 장학금은 경북중학교 성신혜, 윤효선, 조수현 학생과 가산초등학교 이상빈, 한소현, 김찬희, 이미경, 조민지 학생과 정교초등학교 구경모, 박희수 학생에게 전달했다.

2008년 상반기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가산면청소년지도위원회, 이택규 선생 송덕비 제막식



가산면청소년지도위원회는 6월13일 오전11시 가산면 마전3리 삼밭골에서 일석 이택규 선생 송덕비제막식 및 2008년 상반기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일석 선생의 두 딸인 이경숙, 이경화씨가 참석해 가산면청소년지도위원회에 일천만원을 전달하고 어머니(한상숙 여사)가 돌아가시더라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송덕비 건립 추진은 2008년3월 가산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조도행 위원장의 발의로 일석 선생의 송덕비 건립 제안을 아산이씨 대종회 회장 이용현씨와 이용분씨를 만나 승낙을 받고 2008년4월22일 가산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해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류규열 고문이 유족 및 지사를 통해 일석 선생의 공적을 조사하고 이태 바깥으로 류재룡 초대 위원장이 비문을 써 송덕비문을 제작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돈창 경기도 교육위원, 정종근 포천시의회 의원, 오정순 포천교육장, 이은상 정교초등학교 교장, 신봉철 경북중학교 교감, 김의숙 가산초등학교 교감, 연계순 가산면장, 심재호 가산농협 조합장, 이상만 전 경기도의회 의원, 류재룡 가산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초대 위원장, 류규열

가산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제3대 위원장, 박찬성 가산면이장협의회 회장, 이운우 성균관유도회 포천시 지부장, 이관우 경북중학교 총동문회장, 이영종 가산면 지역개발후원회 회장, 오병왕 포천소방서 가산센터장, 전교본 가산면 부녀회장, 추봉업 가산에비문 편대장, 류태균 포천메나리 회장, 이용현 아산이씨 대종회장, 이용근 아산이씨 절제사공파 회장, 이용철 아산이씨 참봉공파 회장, 이용분 아산이씨 전사직공파 회장, 이용경 사직공파 회장, 이덕래 아산이씨 대종회 부회장과 고 일석 이택규선생의 두 딸 이경숙, 이경화씨도 참석했다.

일석 선생 송덕비 건립에 협찬자와 협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도행 가산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 20만원 ▶민영봉 가산면 청소년지도위원회 2대 회장 10만원 ▶류규열 가산면청소년지도위원회 3대 회장 10만원 ▶심재호 가산농협 조합장 30만원 ▶이관우 경북중학교 총동문회장 10만원 ▶이봉규 가산초등학교 총동문회장 10만원 ▶이용현 아산이씨 대종회장 10만원 ▶아산이씨 참봉공파 문중 30만원 ▶이용철 아산이씨 참봉공파 회장 10만원 ▶아산이씨 절제사공파 문중 30만원 ▶이용근 아산이씨 절제사공파 회장 10만원 ▶이용철 아산이씨 참봉공파 회장 10만원 ▶이용분 아산이씨 전사직공파 회장 10만원 ▶이영종 가산면지역발전후원회 10만원 ▶이극중 가산면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원 10만원 ▶이용현 아산이씨 문중(인선지 부부동) 10만원 ▶조남택 제일중기 정비 무상지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6월19일자로 서기관, 사무관, 6급 승진 인사발령

포천시는 6월19일자로 서기관 승진, 사무관 승진, 6급 승진 등 인사발령 했다. 이번 인사는 이광세 국장과 이수환 선단동장, 양철중 이동면장, 6월24일 이규환 국장장, 전교본 가산면 부녀회장, 추봉업 가산에비문 편대장, 류태균 포천메나리 회장, 이용현 아산이씨 대종회장, 이용근 아산이씨 절제사공파 회장, 이용철 아산이씨 참봉공파 회장, 이용분 아산이씨 전사직공파 회장, 이용경 사직공파 회장, 이덕래 아산이씨 대종회 부회장과 고 일석 이택규선생의 두 딸 이경숙, 이경화씨도 참석했다.

다음은 인사발령내용이다.

▶김광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용희 경제행정국장(서기관 승진) ▶맹한영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백영현 선단동장(사무관 승진) ▶이문근 세정과장(사무관 승진) ▶이문순 내촌면장 직무대리(사무관 승진) ▶박진식 예곡휴양전담사업장(사무관 승진) ▶이명선 이명예퇴임, 신북면 윤정호 민원담당, 가산면 이병호 산업계장 명예 퇴임 등 인사수요에 따라 실시됐다.

▶이근형 기획감사담당관실 ▶김정식 자치행정과 ▶이봉춘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병강 회계과 ▶장성순 도시과

▶이강현 재난관리과 ▶김희진 공보관공담담당관실 ▶채희진 기업지원과 ▶조재홍 수도사업소 ▶윤동준 건설과 ▶안광호 환경지원과 ▶이병희 신북면 ▶김원규 수도사업소 ▶이우석 내촌면(6급 승진) ▶김유명 신북면(6급 승진) ▶이진희 가산면(6급 승진) ▶이은구 영종면(6급 승진) ▶조관영 이동면(6급 승진) ▶최순식 화현면(6급 승진) ▶김원현 농축산과(6급 승진) ▶김삼호 반월아트홀관리사(6급 승진) ▶전영창 건설과(6급 승진) ▶서해연(6급 승진) 영북면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딸에게 보내는 다섯 번째 편지

“자신감은 큰일을 해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딸 눈을 어찌지, 칸다선은 더 나빠지지 않았는지, 딸 전화 받고 어찌 마음이 심란하구나. 휴일이지만 마음이 우리 딸에게 가 있어 한잔의 커피를 마시며 딸 책상에서 편지를 쓴다. 딸은 또래들보다는 심지가 굳고 사리가 있는 편인데도 합동과 합동이라고 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너무 버거워 하지 마라 그냥 조금은 편편한 마음으로 여유를 갖기를 바란다.

네가 그곳에서 상위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좋다. 어머니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딸 알아 딸이 어머니한테 신경 많이 쓴다는 거 부담감 갖지 않았음 좋겠다.

공부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나름대로 너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있다는 것만도 어머니 행복하고 네가 고맙고 내가 대견스럽다.

생각에서 최고는 못되어도 너는 다른 부분에서 최고야 어떤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나를 아는 딸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인정해도 되, 딸아 자신감을 가져라.

딸 문득 눈을 뜨니 언젠가 네게 선물했던 서각 글귀가 보이네.

“사랑하는 딸 수정아 인간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엄마 강화도 마나리에서 .. 2005.10.22”

공부만을 말한 글귀는 아닌 듯 싶구나! 이렇게 예쁜 비가 내리는 날이면 엄마 작은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군해. 오늘은 딸 어릴 적 함께 다녔던 광릉내 수목원으로 해서 봉선사 정도라도 말아야.

그리고 봉선사 다래원인데 그 옥한 차 향을 음미하며 대웅전 앞 촛불에단 엄마의 순수한 염원을, 연 꽃 옆쪽 숙연 엄마의 속되고 허망한 부질없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을 비울 수 있기를 빌었고 기원하고 싶었다.

딸, 파이팅! 수정이는 다부지고 현명한 엄마 딸이고 아들이며 장녀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딸도 이 세상에서 이 어머니를 제일 사랑하며? 오 엄마가 위로하는척 하면서 부담 됐나? ㅎㅎㅎ

딸 사랑한다! 너의 이름처럼 밝고 맑게 그리고 머리에 지혜로움을 얼굴엔 미소를 가슴엔 사랑이 숨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여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된 사람의 삶을 살기를 언제나 두 손 모아 간절히 염원한다. 딸, 많이 먹고 씩씩하기 OK? 2008년 6월 8일 일요일에 엄마가



김기호 주부명예기자단 고문



웰빙 부사의(不思意)

삼지(三知) 53

삼지(三知)란 말이 있다. 삼지라? 무슨 말인지 알른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삼지란 지족(知足)과 지분(知分)과 지지(知止)를 말하는 것이다. 즉함을 알고 분수를 알고 그칠 줄 아는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말하곤 한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분수껏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 것이 바로 ‘지지’이다.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 멈춤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단전호흡을 할 때도 호(呼)나 흡(吸)보다 지(止)에 무게를 둔다. 멈출 때 신(神)이 열리고 멈출 때 각(覺)이 오기 때문이다. 숨을 멈추고 ‘무아(無我)의 경지(境地)’에 들어 보라. 정신이 맑아지고 깨우침이 오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다. 지(止)의 상태에 서 명정지수(明鏡止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수(止水) 위에 계

‘지족(知足)과 지분(知分)과 지지(知止)를 말하는 것’

시(啓示)가 발현(發現) 되는 것이다. ‘아이디어(idea)가 떠오르는 것이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를 생각해 보라. 아찔하지 않은가?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에게도 지지(知止)가 있어야 한다. 멈출 줄 아는 지혜(智慧)가 있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멈출 때 멈추지 않고 질주(疾走)하다가 낭패를 당했는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니. 좀 나쁜 듯 할 때 수저를 놓아야 한다. 지나치면 탈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한 것이다. 지나침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나는 머리를 많이 썼다고 생각될 때 공장 손 놓고 걷는다.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무조건 걷는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걷는다. 걷다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유연(柔軟)해진다. 지지(知止)의 효과다. 머리를 멈추는 것이 ‘지지’가 아니다. 생각을 멈추고 욕심(慾心)을 멈추어야 한다. 과욕(過慾)을 멈추고 사유편정( 사유邊靜)을 멈추어야 한다. 아니 버려야 한다.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마음속에 담아 두지 말아야 한다.

물론 멈출 줄 안다는 것은 어

려운 일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 그것이 잘 안 될 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의 내면(內面)을 돌아보고 자신의 능력(能力)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분수(分數)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을 알고 분수껏 살면 문제없게 된다. 분수를 알면 ‘지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분수에 넘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수껏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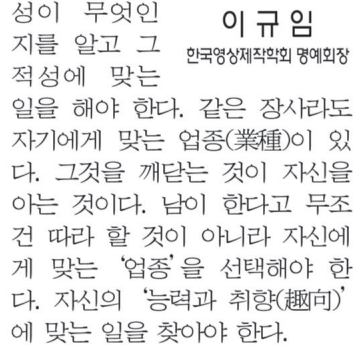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일한 만큼만 거두는 것이다. 맘 흘린 만큼만 거두는 것이다. 맘 흘려 일하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수껏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맘 흘려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니 다툼이 일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분쟁(紛爭)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모든 소송(訟事)도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분수를 지켜야 하는 이유이다. 분수의 경계(境界)를 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능력(能力)과 성향(性向)을 알아야 한다. 수리(數理)에 밝은 사

람은 수리에 집중해야 하고 추리(推理)에 밝은 사람은 추리에 집중해야 한다.

이름 다른 말로 적성(適性)이라고 한다.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같은 장사라도 자기에게 맞는 업종(業種)이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자신은 아는 것이다.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취향(趣向)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한다.



이규임 인문학평론가 겸 영화평론가

모든 일은 자신이 하고 싶을 때 하려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최선(最善)이다. 하고 싶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못하는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나 사들려서 안 하는 수도 있다. 능력(能力) 있을 때 일을 해야 하고 싶을 때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니 속을 끓이는 것이다. 그럴 때 지지(知止)를 떠올려야 한다. 일단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것이다. 어떤가? 그 이치(理致)가 훤히 보이지 않는가?

자유기고

몰래한 사랑 -남자 헤어 디자이너

우리 딸은 동방신기를 좋아하고 유치원생 아들 녀석은 만화영화 주인공 ‘히누야샤’를 우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멋진 장난감 칼을 가지고 놀 때면 아빠는 항상 약당 역할을 맡는다. 들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푹푹 떨어지는 6월의 일요일, 머리손질이 필요해서 단골 미용실을 찾았다.

몇 내기에 자신이 없는 나는 거울 앞에 있기도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편했다. 몸에도 받쳐주지 않던 워너 센스가 없어서 편하고 무난한 것이 최고였다. 하지만 소리 없이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어쩔 수 없이 정리하고 살아야했기에 5년 전 어느 날, 송우리 시내에 있는 미용실을 찾았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맞아서 정리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의자에 앉으니 멋진 헤어스타일과 조각 같은 콧날과 콧수염, 그리고 블랙 톤의 의상을 갖춘 젊은 남자 미용사였다. 그는 말없이 20분 동안 머리를 정리했다. 그리고는 “특별히 머리손질을 안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했다. 머리모양 손질에 자신이 없었던지라 항상 튼튼한 짧은 머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컷에 멋도 넣어 내심 흠뻑했고 3개월에 한번씩 들르는 단골이 되었다.

지난봄에 파마를 했는데 이제는 나를 단골로 인정하는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꺼낸다. 지금은 추억 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 여고시절 단짝친구, 그리고 첫 미팅의 파트너... 그네들 속에 송우리에 서 열심히 삶을 개척하며 살고 또 살고 있을 몇몇 헤어디자이너의 인정을 받고 그 숫자가 많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

20대 젊은 나이지만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으며 흠뻑머리와 남동생의 학비까지 걱정을 하는 삶의 무게를 당당히 메고 가는 것은 알았다. 또한 세상살이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과 진리를 개척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요즘 송우리에 미용실이 너무 많아서 돈벌이가 여의치 못해 가게를 내어 놓은 지 오래지만 아직 나가지 않아서 걱정이라며 속내를 털어 놓기도 했다. 나는 미래를 위해서라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대답해주었지만 왠지 안타까운 마음에 서글퍼졌다.

그 후로 3개월이 지난 오늘, 머리 손질이 필요해 그곳을 찾으니 ‘임대’라는 커다란 글귀와 불개진 미용실 시설만이 유리벽 안에 갇혀 있었다. 순간 내 가슴이 찢어졌다. “참 멋진 헤어디자이너였는데 운명이 어려워져 문 닫은 걸까? 아니면 호주로 이민을 갔을까?... 동방신기의 여자 친구를 소개받은 것 같은, 만화 영화 히누야샤가 끝나버린 것 같은 허전함이 몰려왔다.

지금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지만 살다 보면 가끔은 추억 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 여고시절 단짝친구, 그리고 첫 미팅의 파트너... 그네들 속에 송우리에 서 열심히 삶을 개척하며 살고 또 살고 있을 몇몇 헤어디자이너의 인정을 받고 그 숫자가 많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



윤경자 주부명예기자단 감사